

전남 보이스피싱 ‘기승’...상반기 피해액 100억 ‘ҳҳ’

1-6월 299건 발생·검거 374명
전년동기비 각 22%·116% 증가
1억 이상 고액 피해 50-60대 집중
전남청, 최근에도 30명 검찰 송치

올해 상반기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월 전남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299건, 피해액은 1

27억, 검거 인원은 3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발생 건수 245건, 피해액 82억원, 검거 인원 173명보다 각각 22%, 54%, 116% 이상 늘어난 수치다.

1억원 이상 ‘고액 피해’ 사건은 총 233건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98명 (4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50대 96명 (41%), 40대 39명 (16%) 순이었다.

고액 피해가 50대 이상에 집중된 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고 ‘악성 앱’ 같은 정보 기술에 비교적 취약한 특성이 겹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발생 건수 대비 피해액이 급증한 이유는 고액

수표 발급을 유도하는 수법이 성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3월 목포에선 서울남부지검을 사칭한 이들에게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은 피해자가 1억원의 수표를 직접 건네는 일이 있었다.

저금리 전환 대출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수법도 여전했는데, 최근에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파생 범죄도 성행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남경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처 불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0대) 씨 등 2명을 최근 구속 송치했다.

A씨를 도운 조직원 4명과 이들에게 통장을 양

도한 가담자 2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자금 세탁 일당 8명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대량 모집한 대포통장을 통해 피싱 범죄 수익 23억3천여만원을 분산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은어와 존칭을 사용하며 상하관계를 위장해 경찰 수사를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인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조직원을 폭행한 정황도 확인해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구성된 범죄 조직들이 단순 폭력에서 벗어나

피싱·자금세탁 등 금융의 영역까지 범행을 확장하고 있다”며 “출처 불명의 문자나 전화로 계좌이체 등을 요구받는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에서도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지난 1-6월 광주 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 검거 인원은 각각 전년 대비 20%, 87%, 44% 증가한 255건, 152억원, 341명이었다.

1억원 이상 고액 피해자는 41명이었는데, 이중 60대 이상이 28명 (68%)으로 집계되는 등 광주·전남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가 고령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안재영 기자

日 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모란장’ 수훈

‘외교부 제동’ 취소 3년여만 수여
30년째 피해자 인권운동 등 공로
강제동원모임 “선택적 정의” 비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6) 할머니가 윤석열 정부 시절 무산됐던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취소된 지 3년여 만이다.

3일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전달식을 열고 양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세계인권선언의날(12월10일) 전후로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여자근로정신대’에 강제 동원된 양 할머니는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30년 넘게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에 앞장서 왔다.

이 같은 공로로 2022년 인권위는 양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추천했으나, 당시 외교부가 이견을 제시하며 수여가 보류됐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안’이 통과됨에 따라 훈장 수여가 진행됐다.

전달식에서 육상철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장은 “오랜 세월 일본 정부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제공>

이에 양 할머니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애쓰시는 줄 안다.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달식 당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았다며 서훈을 재개했지만,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며 “이는 절반의 정의이자 필요한 것만 취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했다. /주성학 기자

“비만 오면 잠 못 자” 신안동 주민들 법적대응 예고

수해대책위 구성 후 광주시·북구 상대

광주 북구 신안동 주민들이 지난달 ‘괴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행정 당국이 키웠다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북구 신안동 주민 10여명은 3일 오후 지역 내 한 침수 피해 공장에서 ‘수해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사흘간 최대 6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중순께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은 원인으로 서방천 일부 구간에 설치된 투명 홍수 방어벽과 신안교의 밀폐형 차단막을 지목했다.

방어벽은 광주시가 지난 2023년 서방천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해 1.5m 높이로 세운 것이다. 차단막은 북구가 지난해 악취 저감 등을 위해

설치했는데, 두 시설로 인해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폭우 당시 신안동 일대 주택과 상가 70여채가 물에 잠겼고 주민 1명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수해대책위원회 구성과 대표 추대 등에 속도를 내며 광주시와 북구에 두 시설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을 상대로 재산·인명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안동 주민 문중준씨는 “역대급 폭우가 그치지 2주가 넘게 지났지만, 누구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비가 오면 잠에 들지 못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시설물 원상 복구와 피해 보상 단 두 가지”라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경찰, 음주 측정 거부 후 도주 현직 공무원 체포

광주 도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현직 공무원이 붙잡혔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합평군청 소속 공무원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2시2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차선을 넘나드는 등 수상한 운전 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전 경찰을 본 A씨는 차량을 인근 음식점 주차장에 세워두고 약 50m가량 달아났으나 곧바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

사하고 있다.

/주성학 기자

보호관찰 중 거듭 마약 흡입 30대 구속

마약 투약 전력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30대가 또다시 마약을 흡입해 구속됐다.

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19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광산구 소재 직장에서 액상형 합성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유통 조직과 접촉한 뒤 일정 장소에 숨겨진 마약을 가져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합성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성학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